

<PRNewswire>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 2017 아스타나 엑스포와 동시 개최 예정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6년 5월 9일 PRNewswire=연합뉴스) 매년 열리는 동서간의 토론 포럼인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Eurasian Media Forum, EAMF)이 내년에는 6월 22-23일에 카자흐스탄 2017 아스타나 엑스포와 동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막을 내렸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832951-eurasia-media-forum-astana-expo-2017/>

EAMF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전시회 플랫폼 중 하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EAMF 조직위원회 Dariga Nazarbayeva 위원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와 같이 발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EAMF는 4월 20-22일의 사흘간 중앙 아시아의 중심인 아스타나에서 열렸으며, 55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여하여 가장 긴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Dr Nazarbayeva는 마지막 세션을 요약하며,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모든 가혹한 일들은 문명 충돌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이 서로에게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과정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는 고통스럽고, 극적이며, 긴 과정”이라며 “인류 문명이 조화, 상호 이해 및 평화라는 공동 경로를 걷기까지 앞으로 몇 세대가 더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제 13회 EAMF의 총 참가자 수는 567명이며, 이 중 248명이 해외에서 참여했다. 48명의 연설자가 논의와 현장 중재에 참여했다. 참여한 기자 수는 총 185명이었다.

EAMF는 ‘세계 경제의 현재와 미래, 국제 위기 및 석유가 없는 세상’, ‘중동: 지역적 변혁 과정인가 아니면 이익 게임인가?’, ‘21세기 정보 전쟁: 심장과 마음을 향한 투쟁’ 등과 같은 국제 뉴스 안건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세션들로 구성됐다.

올해 EAMF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설자들이 참여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 전 영국 외무장관 Jack Straw, 전 그리스 관광 장관 Olga Kefalogianni, 브랜딩 전문가 Simon Anholt 등이 있다.

제 13회 EAMF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총회 외에 최고 연설자들이 주도한 워크숍과 마스터클래스가 많았다는 점이다.

EAMF는 2002년 Dariga Nazarbayeva의 프로젝트 하에 동서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비정치적,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됐다. 그 동안 EAMF는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이해관계 영역을 확장하며, 카자흐스탄의 명함으로 그리고 매년 영향력 있는 참가자 수가 늘어가는 세계적 수준의 독특한 쌍방향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출처: Eurasian Media Forum (EAMF)